

한국청년방일단 (제 1~2 단) 초빙 사업 기록

1. 프로그램 개요

【목적・개요】 ‘일본 이해 촉진 프로그램 (JENESYS 2025)’의 일환으로, 한국 전역에서 선발된 발신력이 있는 대학생 등 30 명이 7월8일부터 7월16일까지 앞으로의 한일간 상호이해와 신뢰관계 증진의 기반강화에 기여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방일했습니다. 일행은 테마 ‘한일국교정상화 60주년~후쿠시마와 홋카이도에서의 한일교류’ 하에 미야기현, 후쿠시마현, 홋카이도를 방문하여 각종 시찰, 일본 대학생들과의 교류, 테마에 따른 특강 청강 등을 통해 일본에 대한 이해를 심화함과 동시에 프로그램 중의 배움과 방문지의 매력에 대해 SNS 등으로 발신했습니다.

【참가자】 한국 대학생 등 총 30 명

【방문지】 미야기현 30명, 후쿠시마현 30명, 홋카이도 30명

【일정】

■ 사전 프로그램 (온라인 사전학습) :

7 월 1 일 (금)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 설명), 참가자에 의한 대외발신

■ 초빙 프로그램 :

7 월 8 일 (화) 센다이공항 입국, 도착 오리엔테이션

【강의】 외무성 ‘최근 한일관계에 대해’ (온라인으로 실시)

7 월 9 일 (수) 후쿠시마로 이동

【예방】 후쿠시마현청, 【강의】 ‘후쿠시마의 매력과 현황’

【강의】 ‘동일본대지진을 극복한 후쿠시마와 한국과의 교류’

7 월 10 일 (목) 【학교방문・교류】 후쿠시마대학

7 월 11 일 (금) 【시찰・교류】 후쿠시마 근교 학생들과 함께 아이즈와카마츠 지역 필드워크

【교류】 후쿠시마시민들과의 교류회

7 월 12 일 (토) 홋카이도로 이동, 홈스테이 대면식, 홈스테이로

7 월 13 일 (일) 종일 홈스테이

7 월 14 일 (월) 【학교방문・교류】 홋카이도교육대학 삿포로 캠퍼스

7 월 15 일 (화) 【예방】 홋카이도청, 【강의】 ‘홋카이도의 개요’

【예방】 주삿포로대한민국총영사관

【강의】 ‘한일국교정상화 60 주년 : 한국과 삿포로의 교류에 대해’

【시찰】 한일야구교류의 현장 HOKKAIDO BALLPARK F VILLAGE

액션플랜・소감 발표회

7 월 16 일 (수) 신치토세공항 출국

2. 기록사진

	
7 월 8 일 【강의】 외무성 ‘최근 한일관계에 대해’	7 월 9 일 【예방·강의】 후쿠시마현청 ‘후쿠시마의 매력과 현황에 대해’
	
7 월 10 일 【학교방문·교류】 후쿠시마대학	7 월 11 일 【교류】 후쿠시마시민들과의 교류회
	
7 월 12 일 【교류】 홈스테이 모습	7 월 14 일 【학교방문·교류】 홋카이도교육대학 삿포로 캠퍼스
	
7 월 15 일 【예방·강의】 홋카이도청 ‘홋카이도의 개요’	7 월 15 일 【예방·강의】 주삿포로대한민국총영사관 ‘한국과 삿포로의 교류에 대해’

3. 참가자의 감상 (발체)

◆ 한국 대학생

솔직히 말해서 후쿠시마에 대해서는 그다지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 않고, 미지의 땅이기 이전에 ‘위험하다’ ‘버려진 땅’과 같은 이야기만 들려와서 부모님도 방일 직전까지 후쿠시마에 가는 것을 걱정하셨기 때문에 나 자신도 방문하기 전까지는 공포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 것들은 모두 편견이라는 것을 실감했다. 후쿠시마의 진짜 모습은 생각했던 이미지와는 정반대로, 자연도 아름답고 음식도 맛있고 사람들도 상냥하여, 한국의 보도나 인터넷의 정보로는 결코 알 수 없는 진실을 알게 되었다. 후쿠시마는 더이상 재해지역이 아니었고, 놀랄 정도로 부흥한 그 회복력에 놀랐다. 귀국 후에 후쿠시마의 진정한 모습을 적극적으로 발신하여 후쿠시마와 한국의 교류에 조금이라도 공헌하고 싶다.

◆ 한국 대학생

후쿠시마의 여러 분들의 환영과 교류가 굉장히 인상적으로 남아 있다. 현청에서 들은 "외국인 관광객도 대외수출량도 지진재해 전의 수치를 넘었다" '농수산물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철저하게 검사한 후 출하하고 있다'는 점에도 놀랐다. 후쿠시마대학에 설치되어 있는 방사선의 수치는 내가 살고 있는 한국의 동네 수치보다 낮았다. 이러한 객관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SNS와 블로그를 통해 ‘후쿠시마는 정말 위험한가’라는 물음으로, 많은 한국인들이 오해하고 있는 후쿠시마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고 싶다.

◆ 한국 대학생

후쿠시마와 홋카이도 양쪽 지역에서 대학생들과 교류하고, 일반시민들과도 교류하게 되어 즐거운 때를 일본의 여러분들과 공유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보다도 행복했다. 일본분들로부터 받은 환대와 애정에 언젠가 보답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해 나가고 싶다. 또, 후쿠칸넷과 같은 NPO가 담당하는 역할을 직접 눈으로 보면서 민간 차원에서의 한일교류의 중요성에 대해 새삼 깨닫게 되어 좋았다.

◆ 한국 대학생

이번에는 정말로 많은 프로그램을 준비해 주셔서 일본 친구도 많이 생기고, 홈스테이를 통해 가족도 생겨 굉장히 감사한 방일의 하루하루였다. 그 중에서도 홋카이도교육대학에서는 일본인 학생의 발표를 통해 한일 공통의 과제인 저출산고령화의 영향으로 인한 복지 교육이 과제가 되어 있는 점이나, 한일관계 등에 있어서의 역사관에 대해서도 들을 수 있어 매우 좋았다. 한일의 역사인식의 차이를 좁히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계속 피하는 것은 부자연스러운 일이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 같은 양국의 젊은이들이 지속적으로 대화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새삼 생각했다. 일본인 학생의 “무지는 무섭다, 침묵이 가장 나쁘다”라는 말이 대단히 인상에 남았다.

4. 일본측 감상 (발체)

◆ 후쿠시마현 국제과 관계자

일한국교정상화 60 주년이 되는 해에, 후쿠시마에서 많은 한국 젊은이 여러분을 맞이하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 방문을 통해 후쿠시마의 ‘지금’을 알리는 귀중한 기회가 되었습니다. 또한 여러분이 진지하게 후쿠시마의 부흥 상황 등 적극적으로 이해하고자 하시는 것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이번 교류는 대단히 뜻깊은 것이 되었습니다. 이 만남을 계기로 앞으로도 후쿠시마와 한국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고 서로의 이해와 교류가 더욱 확대되어 가기를 기원합니다.

◆ 후쿠시마대학 학생

한국을 좋아해서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한국어도 배우고 있는데, 한국에 가 본 적도 한국인 친구도 없었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실제 한국인을 만나서 처음으로 한국어를 사용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정말로 즐겁게 교류하게 되어 오늘 일은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후쿠시마에 와 준 한국 학생들에게 “후쿠시마에 와 줘서 정말 고맙다”고 다시 한번 전하고 싶고, 후쿠시마는 좋은 곳이라는 것을 주변 분들에게도 꼭 전해 주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런 기회를 마련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 NPO 법인 후쿠칸넷 관계자 (후쿠시마시민들과의 교류회 협력 단체)

후쿠칸넷은 회원 일동, 오래간만에 한국 청년을 맞이하여 후쿠시마 시민들과의 교류회가 이루어진 것에 감격했습니다. 후쿠시마에 와 준 한국 젊은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후쿠시마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고 시민들의 따뜻한 마음이 전달될지 다같이 교류회를 준비하면서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교류회가 시작되자, 후쿠시마 시민 여러분들이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맛있게먹어주는 모습을 보고 기뻐고, 특히 후쿠시마의 복숭아를 껍질째 베어먹으며 그 맛에 감동해 준 것이 흐뭇했습니다. 일본어에 능통한 학생들이 많아서 후쿠시마의 사정을 이야기할 수 있었고, 후쿠시마에 대한 불안을 느끼지 않는 것처럼 보여서 좋았습니다. 이러한 교류회의 기회가 계속해서 실시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삿포로시 호스트 패밀리

학생들을 맞이한 저희들도 배운 것이 많았고, 다시 한번 일본의 좋은 점, 삿포로 관광지의 매력을 배우게 되어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한국의 문화와 한국어, 사회문제에 대해 알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홈스테이가 아니면 맛볼 수 없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하여, 마당에서 지인 15 명 정도가 모여 바비큐 파티를 했는데, 다양한 일본인들과 만나 홈스테이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경험을 많이 했다고 좋아해 주어서 기뻐했습니다. 돌아갈 때는 편지지 6 장에 걸쳐 열심히 편지를 써 준 것에 감동했습니다.

5. 참가자의 대외발신(발체), 보도자료 등

 아침 일찍 호텔에서 맛있는 조식을 먹고 후쿠시마현청 예방 및 후쿠시마현의 매력과 현황 등에 대한 특강 및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습니다. 후쿠시마현의회일한우호의원연맹 소속 의원들도 환영해 주셔서 매우 뜻깊은 쉽게 접하기 어려운 기회였어요. 저희를 위한 강연도 매우 자세하고, 평소 궁금했던 내용들이 많이 있었으며 질의응답 시간에는 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높은 수준의 질문과 답변이 오갔습니다. 일본과 한국의 교류에 대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어제는 현청 및 이곳에서 오랜 세월을 보냈던 분과 만나 공식적이고 어른의 시선으로 후쿠시마를 접했지만, 오늘은 정반대로 미래를 책임질 젊은이인 후쿠시마대학의 학생들을 만나 양국 간의 친목과 우호를 다지는 시간을 보냈다. 국가도 언어도 다르고 살아 온, 살고 있는 환경 또한 다르지만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하며 대화를 나눠보니 이들과 우리의 차이는 거의 없다는 것을 느꼈다. 한일 양국은 서로 가까운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좋으나 싫으나 많이 엮일 수밖에 없었고 그 과정에서 양국 간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기도 했다. 아직 풀어야 할 숙제는 많고 깊으나, 이번 활동이 미래의 두 국가에 있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교 같은 역할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본다. 그리고 오늘 귀중한 시간 내어 우리들을 반겨준 후쿠시마대학생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 다시금 감사를 전한다.
2025 년 7 월 8 일 (Instagram : 후쿠시마현청 예방) (발체) 후쿠시마현청에서는 후쿠시마현의회 일한우호의원연맹 소속 의원들도 환영해 주셔서 매우 뜻깊은 기회였다. 저희를 위한 강연도 매우 자세하고, 평소 궁금했던 내용들이 많이 있었으며 질의응답은 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높은 수준의 질문과 답변이 오갔다. 일본과 한국의 교류에 대한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애정을 느껴 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	2025 년 7 월 9 일 (블로그 : 후쿠시마대학 방문 · 교류) (발체) 오늘은 후쿠시마대학의 학생들을 만나 양국 간의 친목과 우호를 다지는 시간을 보냈다. 국가도 언어도 다르고 살아 온 환경 또한 다르지만 대화를 나눠보니 이들과 우리의 차이는 거의 없다는 것을 느꼈다. 한일 양국은 가까운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갈등도 많고 아직 풀어야 할 숙제도 있지만 이번 활동이 미래의 두 국가에 있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교 역할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본다.
 후쿠시마 대학 안에는 방사능 측정 기계가 있었다 우리가 방문한 날 방사능 수치는 0.094로 서울 용산이 0.13 충남 서천이 0.107로 오히려 내가 사는 지역보다 더 낮은 수치인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다들 후쿠시마니깐 당연히 방사능 수치가 월등하게 높을거라고 생각했었는데 한국보다 낮은 수치에 반대로 더 놀랐던것 같다.	마무리하며 직접 방문한 후쿠시마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활기차고 단단한 곳이었습니다. ‘재해를 겪은 지역’ 뿐만 아니라, 그 이후를 치열하게 고민하고 실제로 변화시켜온 곳이라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주민들이 보여준 진심 어린 환대와 “후쿠시마의 지금을 전해달라”는 부탁은 아직도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 간의 교류가 중요하다는 메시지는 저희 같은 대학생들에게 더 큰 의미로 다가왔구요. 이번 방문을 계기로, 일본이라는 나라를 새롭게 보게 되었고 ‘교류’가 단순한 방문이나 이벤트가 아니라, 서로의 이야기를 듣고 이어주는 일이라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경험들이 더 많아지면 좋겠고, 그중에 제가 조금이나마 역할을 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도 생겼습니다.

2025 년 7 월 10 일 (Instagram : 후쿠시마의 방사능 수치)

발체) 후쿠시마대학 안에는 방사능측정기계가 있었다. 우리가 방문한 날 수치는 0.094 로 서울 용산이 0.13, 충남 서촌이 0.107 로 오히려 내가 사는 지역보다 더 낮은 수치인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다들 후쿠시마니까 당연히 방사능 수치가 월등하게 높을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한국보다 낮은 수치에 반대로 더 놀랐던 것 같다.



2025 年 7 月 12 日 (블로그 : 후쿠시마 체재를 마치고)

(발체) 직접 방문한 후쿠시마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활기찬 곳이며, 재해를 겪은 지역 뿐만 아니라 그 이후를 치열하게 고민하고 실제로 변화시켜 온 곳이라는 인상을 받았다. 주민들이 보여준 진심 어린 환대와 후쿠시마의 지금을 전해달라는 부탁은 아직도 마음에 남아 있다. 이번 방문을 계기로 일본을 새롭게 보게 되었고 ‘교류’ 라는 것은 서로의 이야기를 듣고 이어주는 일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2025 년 7 월 12 일 (Instagram : 홈스테이)

호스트 가정 분들이 우리를 위해 김치를 준비해 주셨다. 샷포로의 재일동포가 담근 김치라고 한다. 호스트 가정 분이 좋아하는 음악을 틀어 놓고 생각보다 맛있는 샷포로 지역 한정 맥주를 마시면서 일본어를 잘하는 친구가 통역을 잘 도와줘서 서로에 대해 알아가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다.

2025 년 7 월 10 일 (후쿠시마민보신문 조간)

“한국 학생 부흥 이해”라는 제목으로, 전날의 후쿠시마현청 예방 모습(후쿠시마현의회 일한우 호의원연맹의 의원과 현의 국제과가 환영한 것 등)과 함께, 동일본대지진과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 1 원전 사고로부터의 부흥 상황과 일본의 역사・문화 등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고 있다고 소개.



MINPOJP

韓国の大学生、福島市の住民と交流 対日理解促進プログラム「JENESYS」の一環 流しそうめんやモモなど...

2025년 7월 12일 (후쿠시마민유신문 조간) 전날 밤에 실시된 후쿠시마 시민과의 교류회의 모습을 방일단 학생대표 인터뷰와 함께 소개.	2025년 7월 17일 (후쿠시마민보신문 WEB 판) “한국 대학생, 후쿠시마시 주민과 교류~대일이 해촉진프로그램 「JENESYS」의 일환”이라는 제목으로, 11일에 실시된 후쿠시마 시민과의 교류회의 모습을 소개. ※같은 내용이 다음날 18일 조간에도 게재.
---	---

6. 보고회에서 방일성과와 액션플랜 발표 (개요 또는 발제를 기재함)

 단기 액션플랜 • 고성언론/대학신문에 독자기고 • 후쿠시마에 대한 인식 변화를 중심으로 • 미디어(소설, 영화, 만화 등) 속 독특한 일본 문화를 소개하는 블로그 포스팅 • 2026 상반기 JLPT N1 응시 중장기 액션플랜 • 방일단 활동 중 만난 인연들과 지속적인 연락 및 만남 • 워킹홀리데이 또는 한 달 살기로 일본에서 장기적인 거주 경험 • 한일관계 소재의 소설 집필하여 출판사/문학재단 문학상 응모	 JENESYS2025 여름 대학생 방일단 활동 후기 E조 윤호근 동일본대지진 복구 시찰 동일본대지진이 발생한 지 14년이 되었으나, 아직 제게 후쿠시마는 꺼려지는 이미지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방일을 통해 이는 기우였다고 느꼈습니다. 다른 도시와 다를 바 없는 모습과 평범하게 일상을 보내던 사람들, 자연의 푸른 녹음이 우리를 반겨주었습니다. 교류 활동 소감 한일 양국은 많은 방면에서 얽혀 있기에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도 있습니다. 저는 일본 문화를 소비하고 사랑하는 입장에서 딜레마에 빠지곤 했습니다. “한일 우호를 위해 문화와 청년 교류만이 아닌, 역사 인식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교육 현장에서 이를 어떻게 전달해 나갈 것인가가 중요하다.” 이번 활동 중 만난 한 일본 학생의 견해입니다. 기억의 풍화를 막기 위해 피하지 않고 계속 마주하며 해결하려는 노력, 그 과정에서 많은 마찰이 있겠지만, 진정한 양국의 우호를 위해 필요한 자세임을 느꼈습니다. 액션 플랜 - 교환학생 교류 활동 / 정보 전달 / 언어 공부 중장기적 목표 1. 한일교류를 위한 SNS 활동 2. 이번 교류를 통해 얻은 인연 유지 3. 워킹 홀리데이 생활
【성과발표】 • 후쿠시마에서의 배움이 컸습니다. 동일본대지진으로 인한 원전사고 후 한국에서 후쿠시마라고 하면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아 나 자신도 불안한 마음을 품고 있었는데, 실제로 방문하여 후쿠시마의 학생과 시민 여러분과 교류하면서 그들이 어떻게 곤란을 극복하고 지금의 일상생활을 되찾았는지, 지역의 미래와 안전을 위해 어떻게 노력하고 있는지를 직접 눈으로 봄으로써 그러한 선입견은 자연스럽게 사라졌습니다. 후쿠시마는 이제는 부흥을 이룬 상징적인 지역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 한일국교정상화 60 주년을 기념하여 독자적으로 로고를 디자인하고, 관련 굿즈도 제작해보았습니다. 앞으로도 한일을 모티프로 한 디자인을 계속하고 싶습니다. 【액션플랜】 • 후쿠시마에 대한 인식변화를 중심으로 한 기사를 매스컴과 대학신문에 기고 • 각 미디어에 일본의 독특한 문화를 소개하는 블로그 기사 투고	【성과발표】 • 동일본대지진으로부터 14년이 지났어도 후쿠시마를 피해 왔는데, 이번 방일을 통해 후쿠시마를 방문하고는 그것이 기우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우리는 지금까지 풍평피해에 현혹되어 필요 이상의 공포를 느끼고 있었던 것이 아닐까. 진실을 명확히 보는 것이 문제 해결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한다. • 한일간에는 해결되지 않은 많은 문제도 있고, 일본문화를 소비하는 입장에서 딜레마도 있었지만, 일본 학생으로부터 “일한우호를 위해서는 청소년교류와 문화교류 뿐만 아니라 양국의 역사인식에 대해 마주해 나가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발언을 듣고, 피하지 않고 마주하려는 자세야말로 진정한 한일우호를 위해 필요한 자세라고 느꼈다. 【액션플랜】 • 한층 더 한일교류에 힘쓰고, 일본어 학습에도 주력하기 • 이번 방일에서 배운 것을 SNS 등을 통해 제대

▪ 이번 방일에서 만난 분들과의 인연을 계속 이어나가고 자주 연락하기 ▪ 2026 년도 상반기의 JLPT 수험을 위한 준비 ▪ 중장기적으로는 일본에서의 워킹홀리데이 등을 계획	로 주위에 전하기 ▪ 이번 방일에서 만난 분들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 일본에서의 워킹홀리데이 생활
---	--

실시단체명 : 공익재단법인 일한문화교류기금